



화단 및 분화용 돌나물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Sedum sarmentosum* Native to Korea.



송 정 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하며, 비교적 뜨거운 햇빛에도 잘 견딘다. 그러므로 점질양토로 물빠짐이 좋은 곳이면 거친 땅이나 메마른 땅 어느 곳에서도 잘 자란다. 반면에 물이 고이는 땅은 싫어하며 다소 건조한 곳이 좋다. 한 여름에는 해가림을 20~30% 정도 해도 잘 자란다. 기후는 가리지 않는다. 참고로 돌나물은 옛날부터 신초를 따서 김치를 만드는데 쓰여 온 산나물이다. 섬유질이 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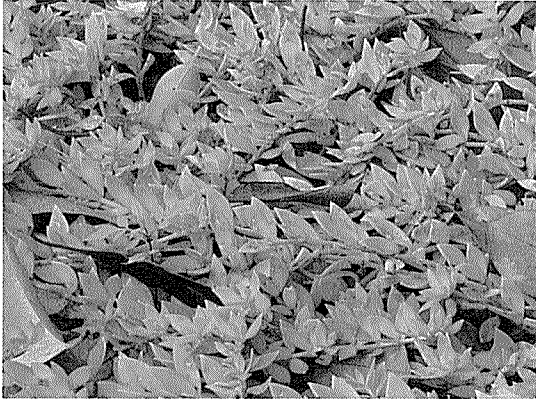
옥상같은 불량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화단이나 정원, 또는 암석 틈에서 돌나물만큼 빨리 공간을 피복하는 지피류도 드물다. 녹색으로 깔리며 카펫처럼 덮은 모양도 좋지만 여름에 노란 꽃들이 피었을 때 보면 더욱 보기가 좋다. 다육식물이라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어느 정도 그늘진 곳에서부터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 이르기까지 식재 적용 범위가 참 넓은 식물이다. 최근에 옥상정원을 만드는 곳이 많아지면서 점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1. 생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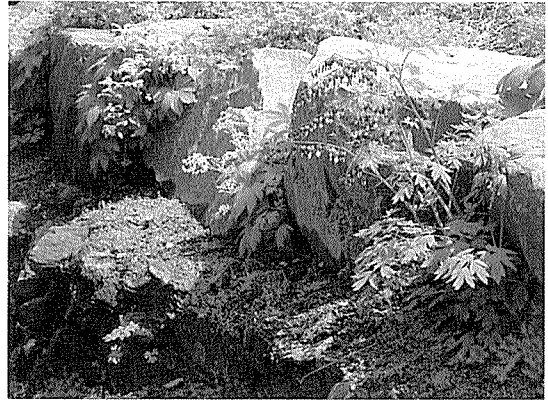
들이나 산기슭에서 자라는 다년생 다육식물로 돌에 붙어 살면서 번진다 하여 돌나물(*Sedum sarmentosum*)이란 이름이 붙었다. 돌나물은 몸속에 물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가뭄에 견디는 힘이 매우 강



▲ 돌나물 꽃



▲ 돌나물 잎



▲ 암석특식재

비타민 C와 인산이 풍부하며 새콤한 신맛도 있어 식욕을 촉진하는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 재배기술

가. 종묘준비 및 정식

돌나물은 종자가 잘 생기지 않으며, 번식은 주로 줄기나누기나 삽목으로 한다. 종묘량은 300평당 200~300kg의 포기 줄기가 소요된다. 번식은 생육기의 어느 때나 가능하며, 주로 봄~여름철에 새싹이나 줄기를 채취하여 삽목하거나 바로 정식하면 된다. 가을 늦게 번식할 경우는 뿌리내림이 불량하다. 정식방법은 돌나물을 2~3cm로 절단하여 두둑넓이 90cm, 높이 20cm로 화단을 만들어 놓고 두둑에 흩어 배열하고 줄기가 보일 정도로 얇게 복토한다. 심은 다음에는 가볍게 다져서 줄기 들림이 없도록 하고 물을 주어 줄기와 흩이 잘 붙도록 하면 10여일 후에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돋는다. 너무 깊게 흩을 덮어주면 줄기가 완전히 묻혀 썩을 염려가 있다. 복토재료로는 깨끗한 모래가 좋다.

나. 재배관리

봄부터 너무 과습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화분에 심을 때는 마사토에 심고 약간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모를 이식한 당년에는 포기사이를 10~20cm로 하지만 당년에 화단 전

체에 퍼진다. 2년차가 되면 전 포장에 밀생하게 되어 포기 가운데가 부패(무름증세)할 염려가 있다. 이 경우 밀생된 부분은 과감하게 솎아주는 것이 좋다. 심은 해에는 장마 전후(6월경) 제초작업을 한번 정도 해주면 되고 이듬해부터는 전 포장을 덮기 때문에 잡초의 발생이 현저히 억제된다.

가을철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면 줄기가 얼고 잎이 떨어진다. 이 시기에 잘 썩은 완숙퇴비를 돌나물 화단에 뿌려 피복하고 그 위에 짚을 덮어 보호하면 월동에 지장이 없고 봄철에 다시 나온다. 추위가 심하지 않은 남부지방은 짚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돌나물은 내건성이 강하여 화분재배에서도 적응성이 높다. 그러나 너무 음지거나 습한 곳에서는 도장하거나 부패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베란다의 양지쪽에 놓고 약간 건조하게 물 관리 하면 잘 자란다. 겨울철에는 고사하거나 지저분하게 지상부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거두어 내어 주면 휴면타과가 되는 동시에 새싹이 탐스럽게 올라온다.

다. 병충해 방제

병충해는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여름철 습할 때 달팽이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석회분말을 살포하여 주고 너무 번성하여 연부병(무름병)이 생기면 충분히 솎음작업을 해 주면 된다. 